

회장 인사

종친여러분의 가정, 가정에도 큰 복이...



친애하는 국내외 60만 종친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그리고 김신 백범기념사업협회 이사장님과 명예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안동김씨 제 40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안동김씨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명문답게 위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김시민장군의 공신교서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반환운동이 400여년만에 공영방송인 MBC문화방송을 위시하여 전국민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행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부의 고위관계자, 국회의원, 학계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장엄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난을 당하여 나라가 어지러움에 처할때 우리 선조님들의 불타는 애국정신이 살신성의로 이루어져왔음을 말해 주는것입니다.

이 백범기념관 역시 민족의 지도자이시며, 겨레의 스승이신 김구 선생을 기리는 전당으로 온 국민의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성스러운 전당입니다.

이같은 선조님들의 훌륭한 정신은 우리 총렬공 할아버님의 고귀하신 호국정신이 대대

로 이어져 옴을 말하는 것으로 종친의 한사람으로 또는 대종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는 정해년의 황금돼지띠의 해라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운과 큰복을 준다고 하니 종친여러분의 가정, 가정에도 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금년은 국가의 큰 행사인 대통령선거와 부진의 늪에 빠진 국가경제로 종친여러분의 가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은 우리가 항상 해왔드시 위선사업에 힘을 쏟고, 지혜를 모을때 우리가 바라는 전산 선진화, 화합하는 종친회가 이루어 질것을 굳게 믿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금년은 제가 회장에 취임한지 3년이되는 마지막해로 종친여러분의 적극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말씀드린 선진 전산화, 종친화합등을 마무리하는 해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힘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먼거리를 마다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친여러분과 내외귀빈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홍식 拜上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第40回 安東金氏 定期總



지난 3월 16일(금) 오전11시에 겨레의 큰 스승이며 우리 안동김씨의 자랑스러운 어른이신 백범 김구선생의 얼을 기리는 백범기념관에서 종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순에따라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에 이

어 홍식회장의 개회선언 (제)남응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다음 내빈소개와 지난해 문중을 빛낸 종친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제)名年감사로부터 2006년도 회계결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 시간에 들어가 백범기념사업협회 사무국장으로 부터 10만 원권 화폐발행을 앞두고 백범김구선생의 존영이 도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안동김씨종친님들의 성원을 부탁한다는 인사말에 이어 즉석에서 참석종친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시간이 정오가 넘어 준비된 중식을 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담소를 나누고 오후 1시반경 모든행사를 마쳤다.

“총회에서 축하패를 받은 종친”

- ① 법 학 박 사 (익)김성식
- ② 언 어 학 박 사 (제)김태진
- ③ 공 학 박 사 (안)김동회
- ④ 행 정 고 시 (익)김덕구
- ⑤ 동탑산업훈장 (제)김승용
- ⑥ 경 제 학 박 사 (서)김규판(태)
- ⑦ 공 학 박 사 (서)김추광(태)
- ⑧ 육군준장진급 (익)김용화
- ⑨ 공 학 박 사 (문)김완식

“축하화환(無順)”

- 백범기념사업협회 김신회장
- 대우증권(주) 대표이사 손복조
- 안동김씨 인천종친회원 일동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한도섭
- ARCH, PROJECTS뉴욕 김현(홍식회장차남)
- 연세대학원동문회
- 향전원에대표 김재균
- 안렴사공파 천안병천노은공 종중
- 안렴사공파 참봉공 재경광기 종중

高麗崇義殿春季大祭奉行



지난 4월 19일(음 3월 3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위치한 송의전에 서 各門中人事및 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의전춘계대제를 엄숙히 봉행

하였다.

송의전에는 고려 四王을 비롯하여 16功臣이 배향되어 있다. 이날 총렬공 할아버님께 헌작은 (익)문원(규회) 종친이 헌작하였다. 이날 우리 門中에서는 現송 의전 보존회장인 (익)명회 (익)규회 (익)만길 (문)재호, 은호 대구청장년회장,

관목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高麗崇義殿 配享神位

四王：太祖神聖皇帝(王建), 顯宗元文大王, 文宗仁孝大王, 元宗順孝大王

功臣陪臣閣 16功臣

●忠烈公	金方慶(安東人)	●文肅公	尹 瓚(坡平人)
●武功公	卜智謙(河川人)	●文烈公	金富植(慶州人)
●忠烈公	洪 儒(義城人)	●威烈公	金就礪(彥陽人)
●壯絶公	申崇謙(平山人)	●文貞公	趙 冲(横戍人)
●忠節公	庾黔弼(茂松人)	●平章事	安 祐(耽津人)
●忠烈公	裴玄慶(慶州人)	●樞密副使	李芳實(咸安人)
●章威公	徐 熙(利川人)	●政堂文學	金得培(商山人)
●仁憲公	姜甘贊(約川人)	●文忠公	鄭夢周(迎日人)

判書公 諱愼先祖時享奉行

판서공 휘선, 충숙공 휘 승용, 상락군
휘후 군사공 휘 칠양4位선조님시향



지난 5월 2일(음 3월 16일)전남강진군 작천면 토마리선영에서 판서공 휘선 충숙공 휘 승용 상락군 휘후 군사공 휘 칠양4位선조님시향을 종친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에는 대종회 홍식회장, 밀직사공과 영응회장, 개성윤공과 이경희장, 군사공과 수인회장, 전성공과 근성회장, 인천종친회 춘교회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군사공과 종친과 멀리 전서공과 종친들이 대거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추모의 행사가 되었다.

이날 시향 分定은 다음과 같다.

- 판서공 휘 선
초헌관 (문)광도

- 아헌관 (안)홍식대종회장
종헌관 (전)춘교인천종친회장
집례: (군)두희
독축: (군)찬희
- 충숙공 휘 승용
초헌관: (전)근성회장
아헌관: (부)재은전부사공파회장
종헌관: (군)용희
- 상락군 휘 후
초헌관: (개)이경희장
아헌관: (밀)영응회장
종헌관: (군)중목칠정문중회장
- 군사공 휘 칠양
초헌관: (군)창희
아헌관: (군)재구
종헌관: (군)희수



大護軍公 諱儒先祖時享奉行



지난 4월 30일(음 3월 14일) 오전 11시 전남나주군 김천면 죽천리 後山묘정에서 종친 30여명이 參詣한 가운데 大護軍公諱儒(휘 유)先祖님을 비롯

하여 諱 彦龍(휘 언룡), 諱 彝(휘 이), 諱 汝(휘 여), 諱 世重(휘 세중), 諱 勲(휘 훈), 諱 守證(휘 수증), 諱 濬(휘 준), 八位先祖님의 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에는 관목사무총장(문)재호 종친이 참석하였다. 분헌관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상회
- 아헌관 경종(회)
- 종헌관 태식

사간공(司諫公-諱 顧) 시제 봉행



▲사간공 단묘

지난 5월 1일(음력 3월 15일) 오전 11시, 경남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홍의재(弘毅齋)에서는 제학공(提學公 諱 益達)의 아드님이신 사간공(司諫公-諱 顧) 선조님의 시제가 봉행되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멀리 천안 병천, 괴산, 청주 등지에서 32명의 후손들이 모여 정성으로 시제를 봉행하였다.

사간공(1389년-1431)께서는 1404년(태종4) 사마시(司馬試)

에 입격하시고 1408년(태종8) 문과에 급제하신 후 좌사간(左司諫)에 오르셨다. 향년은 43세이며, 묘는 휴전선 북방인 경기도 개성시 소남면 약정동 자좌(子坐)로 이익재(李益齊) 묘 아래에 있다. 1987년 4월

경남 산청에 단묘를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15일 시제를 올린다. 이날 헌관 및 분정은 다음과 같다.

- *初獻官: 南應(제학공파종회장)
- 亞獻官: 相沂
- 終獻官: 泰玉
- 執 禮: 奎文
- 讀 祝: 天應
- 陳 設: 東浩
- 直 日: 鶴應(전 문영공파회장)

「제공:제학공파종회」

송천서원 정해년 향사봉행



(諱 士廉)선조님이 主壁으로 모셔져있다.

이날향사 分定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청원군수 김재욱(本孫)
- 아헌관: 유림 김석태
- 종헌관: 유림 오좌균
- 집례: 유림 변상건
- 대축: 유림 이성재
- 직일: 성균관 유도회
충북지회장 연병권

「제공:안렴사공파부회장 태문」

지난 5월 6일 오전11시 충북청원군 오창면 양지리에 위치한 송천서원에서 도내유림 및 문중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성대히 봉행하였다. 송천서원에는 안렴사공 휘 사렴

안림사공파총회개최



민의를,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에 이어 영만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영만회장은 인사말에서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 이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고 앞으로 뿌리를 찾고 이어가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관목사

지난 2월 14일 오전11시 안림사공파총회에서는 충북청원군 오창읍내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종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의거 개회선언, 국

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회순에 의거 감사보고, 2006년도 결산안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12시 20분경 총회를 마쳤다.

「제공: 안림사공파총회」

인천종친회 창립 31주년 정기총회



인천종친회(회장 춘교)는 지난 4월 21일 오후5시 시내 신신웨딩홀 부패에서 8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1주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내빈으로는 홍식대총회장, 익원공파 태영회장, 청주종친회 영목회장, 대총회 태육감사, 성회 전부회장, 관목 사무총장, 익원공파 충민공종회 재관회장, 재택총무 그리고 경기화성의 전서공파 화기공종회 두교회장과 종친분들이 참석하였다.

춘교회장의 개회사와 내빈축사에 이어 인천종친회 행사때마다 참석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두교회장(典)에게 감사패를, 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재은고문(副), 복귀

(按), 인상(翼), 종육(典) 종친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 하였으며 이어 지난해 회계결산, 사업추진보고와 2007년 예산,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그리고 종친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파명, 칼라사진, 직장명 등을 수록한 2007년도 종친회원수첩을 1,500,000원의 예산을 들여 500매를 제작발간하여 종친1인당 5매씩 배부하였다.

2부순서로 석식에 이어 노래자랑 등 여흥시간을 가졌으며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총회는 시종 화기에애한 가운데 오후9시에 모든 행사를 마쳤다.

「제공:인천종친회」

청주 종친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청주 종친회에서는 청주시내 “거구장”에서 종친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선회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의거 영목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 소개에 이어 영목회장의 인사말과 홍식대총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청주종친회는 安東金氏門中에서 가장역사가 깊은 종친회이다. 이

날 익원공파 태영회장은 그간 종친회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내빈으로는 홍식대총회회장을 비롯하여 학응고문 안림사공파 영만회장, (익)용대 전 문영공회장, 인천종친회 춘교회장, (익)만길사무국장 관목대총회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중식에 들어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 담소를 나누고 오후 1시 30분경 모든행사를 마쳤다.

「제공: 청주종친회제공」

철원부사공(휘 화) 합장묘 출토복식 보고서 발간



▲출토복식

문온공파의 철원부사공(휘 화) 합장 묘소에서 출토된 복식 111점에 대한 보존처리 및 연구 결과를 총정리한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안동김씨 문온공파』가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로 발간되었다.

장장 6년여에 걸친 복원처리와 연구 및 사진촬영 작업을 끝내고 2007년 2월 경기도박물관이 펴낸 이 보고서는 5X7배판(국배판),

388쪽, 양장제본으로 책머리에 출토복식의 중요성을 역설한 경기도박물관 이종선 관장의 인사말을 비롯해 출토복식의 화보와 묘지석 2종, 유물 보존처리, 유물 고찰, 실측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보고서와 함께 CD-ROM에 책내용을 e-book 형태로 수록해 학계의 연구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책 앞뒤 표지는 철원부사공 할아버지께서 입으셨던 단령의 흉배와 동래정씨 할머니의 저고리 섶무늬와 습신을 소재로 디자인되었다. 특히 할머니께서 입으셨던 저고리 섶무늬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교해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화보 : 서한강〉은 부사공(휘 명리), 철원부사공(휘 화) 할아버

지 묘지석 각 1종을 비롯해 철원부사공과 배위 동래정씨 관(棺), 철원부사공 친필 시, 주요 출토복식 사진 등을 담고 있다.

〈행력(行歷) : 김성환〉에는 ‘금사 김화와 숙인 동래정씨의 행력’이라는 제목으로 ‘포천 안동 김씨의 선영과 김화 묘의 천장’, ‘김화의 가계와 행력’, ‘묘갈명과 묘지명’, ‘김명리 묘지’ 등이 수록돼 향후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사공(휘 명리)의 묘지는 여말선초의 중앙 관계(官界), 여말의 과거제도(국자감시, 생원시, 국자감) 및 당시 국자감시 입격자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유물 보존처리〉에는 ‘김화 합장묘 관(棺) 보존처리(이재성, 전익환)’,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의 보존처리(이미식, 배순화, 홍

문경)’가 실려 있다.

〈유물 고찰〉에는 ‘김화 합장묘 출토직물 연구(조효숙, 이은진)’와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 연구(송미경)’ 등 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김화 합장묘 출토직물 연구’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방법, 문헌에 기록된 조선 중기의 직물명칭, 김화 묘와 동래정씨 묘 출토직물의 제작 특성과 무늬의 특성, 결론 등이 담겨 있다.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 연구’는 김화 묘 출토복식과 동래정씨 복식으로 대별되는데, 각각 염습의(殮襲衣)의 구분, 출토복식의 연구, 염습제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111점의 〈실측도〉에는 출토 복식의 사진과 실측도 및 소재, 크기를 기록하여 누구라도 복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공:문온공파총회제공」

〈泰山 김태인박사 송덕비 제막식 및 泰山 활터 기부 채납식 거행〉

내가 있게 해 준 자랑스러운 모교에 아주 작은 봉사

지난 2007년 5월 17일 11시,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초등학교 교정에서는 병천 초등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태인 전 대총회장님의 업적을 기리는 〈태산 김태인 박사 송덕비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남음 제학공파회장, 영만 안렴사공파회장, 태문 안렴사공파부회장, 성회 전대총회 부회장, 안렴사공파 홍식, 사무국장 관목사무총장을 비롯한 종친 여러분과 로타리 클럽회원, 지역 동창회 회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는데, 향토사학자 김

준기님으로부터 태인 전회장님의 약력소개, 총동창회장의 기념사, 유현종 전동창회장의 축사, 홍식 대총회장님의 축사(남음 제학공파회장 대독)에 이어 태인 전회장님의 총 동창회 후원금 전달 등이 있었다.

이날 태인 전회장님은 답사를 통해 목 메인 음성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해 준 자랑스러운 모교에 아주 작은 봉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큰 행사를 열어 주시니 더없이 고맙고 한편 송구스럽기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오후 2시에는 동 초교 충효관(강당)에서 〈태산 활터 준공 및 기부 채

납식〉이 있었다. 먼저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공연, 단소 연주, 초교 1학년 학생들의 재롱 넘치는 댄스와 스포츠 공연 등이 있었다. 이어 본행사에서 천안시 국회의원 양승조님, 천안시 교육장과 충남도교육청 교육위원, 인근 초교 교장, 관내 각 기관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학교장 식사, 태인 전회장님이 교육장에게 드리는 활터 기부금 채납증 전달, 조동호 교육장과 김항중 교장이 태인 전회장님과 박준영 총동창회장에게 드리는 감사패 전달식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부자 태인 전회장님의 애절한 인사말과 교육장의 치사, 이성구 교육위원의 축사 등이 있었다. 이어 개관 테이프 절단, 전국 제패 양궁선수들의 시연, 활터 시설 참관과 다과회 등으로 이어지며 행사는 성대하게 종결되었다.

「제공:南應 제학공파회장」



▲송덕비에서 태인 전회장님



▲기념식장 앞에서 종친일동



▲태산활터 앞에서 양궁시연

“진천군 종친회 총회”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진천군 종회(회장(按)영만)에서는 읍내 문화회관에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영만회장은 인사말에서 2008년도에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뿌리의식이 더욱 희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종친들께서는 후손들에게 송조이념을 고취시켜 달라는 당부와 인사말과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종친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 관목사무총장의 30분에 걸친 宗史에 대한 설명과 경회(按) 전 진천군수의 격려사가 있었다.

회순에 따라 2006년도 결산안,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중식에 들어가 오후 1시 30분경 모든 행사를 마쳤다.

「제공: 진천군종친회」

“증평군 종친회 총회”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증평군 종친회(회장(按)재성)에서는 읍내 우가촌식당에서 종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증평군 종친회는 괴산군에서 分郡된후 첫총회이다. 재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조님의 위선사업에 협조하신 종친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앞으로 화합과 단결로 종친회가 더욱 발

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관목사무총장의 인사말과 (按)경희 전 진천군수의 축사가 있었다.

회순에 의거 2006년도 결산안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식에 들어가 종친간에 담소를 나누고 오후 1시 30분경 모든행사를 마쳤다.

「제공: 증평군종친회」

남원용장서원(南原龍章書院)



이 서원은 조선조 태종 2년 1402년 창건 중건년대는 미상(重建年代未詳)

이 서원에 배향하신 고려말 성리학자(性理學者) 척약재(惕若齋) 김구용선생(金九容先生)의 시호(諡號)가 원래 문온공(文溫公)이신데 어찌해서 문경공(文敬公)으로 오서(誤書)가 되어 근 백여년간 유림(儒林) 후손이 개연(慨然)히 여겨 위패를 정정(訂正)하려고 하였으나 어언 장구(長久)한 세월이 경과하였다. 참의공(參議公)의 후손 김천회(金千會)씨가 그에 소요된 경비를 독담하고 역시 예홀(禮笏)과 고유문(告由文)을 준비하여 2007년 1월 3일 오전 11시에 원장(院長) 방사원(房仕源)씨

주관하에 문온공(文溫公)으로 위패(位牌)를 정정(訂正)하였다.

용장서원은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종 2년(1402년)에 창건되었다 한다 이 서원은 조선초에 창건하여 조선말기까지 이고장 자녀교육에 이바지한 바 컸으며,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다. 그러나 고종 5년(1868년)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철거되었으며, 그후 복설(復設)하였는데 복설 연대는 알 수 없다.

이곳에는 고려 충신 양능양(梁能讓)을 주벽으로 하고, 같은 고려말의 충신 양주운(梁朱雲), 고려말 성리학자 김구용(金九容), 임진왜란시 공신 양대박(梁大樸) 등을 배향하고 있다.

「제공:文溫公后參議公孫千會」



통제사공(휘 영수) 경상지역 유적 답사기

청덕사 방문, 고유제 봉행 · 충렬공 유적지 정동행성 터

이 글은 2007년 2월 2일~4일까지 군사공과 선조님이신 통제사공 휘 영수(永綬)께서 경상지역(경북 흥해읍 및 경남 마산시 일원) 남기신 유적을 재원(문), 발용(군), 태영(군), 항용(제), 정중(도), 윤식(문) 등 6명이 답사한 내용을 축약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편집자 주)

청덕사 방문, 고유제 봉행

통제사공께서는 1761년(46세) 경북 포항시 흥해군수로 부임해 1762년부터 단 1년 만에 태평보(太平湊) 등 11개의 보를 쌓고, 권무당(勸武堂)을 지어 전란에 대비하시는 한편 선정을 베푸셨다. 흥해읍민들은 통제사공의 높은 덕을 기리기 위해 1786(정조 10) 흥해구제기적비(興海九堤紀績碑)를 세우고, 1811년(순조 11) 청덕사(淸德祠)를 지어 오늘날까지 매년 음력 9월 9일 제사를 모시고 있다.

통제사공은 청백리 탁청헌(濯淸軒 : 휘 斗南)의 손자로서 군사공(휘 七陽)의 14세손이다. 통제사공의 처음 휘(諱)는 영적(永績), 자(字)는 중약(仲若)이다. 통제사공께서는 흥해군수를 비롯해 전라우·좌수사를 거쳐 함경도병사, 제주목사 겸 방어사, 충청도 병사를 역임하고 통제사로 부임해 통영 임지에서 순직하셨다.

• 10명의 安金 통제사

35대	김응해(金應海)	1646. 3. ~ 1648. 3.	金應河의 弟
43대	김 적(金 邊)	1659. 8. ~ 1660. 1.	金智重의 5代孫
63대	김세익(金世翊)	1685. 3. ~ 1686. 6.	金應海의 孫
71대	김중기(金重器)	1695. 8. ~ 1695. 11.	金應河의 曾孫
85대	김중원(金重元)	1711. 11. ~ 1713. 5.	金應海의 曾孫
92대	김중기(金重器)	1718. 9. ~ 1720. 1.	金應河의 曾孫
100대	김 흠(金 翕)	1727. 12. ~ 1729. 12.	金世翊의 孫
104대	김 집(金 渚)	1733. 6. ~ 1736. 4.	金重元의 子
106대	김 광(金 洸)	1737. 9. ~ ?	金應海의 高孫
116대	김 윤(金 潤)	1754. 3. ~ 1755. 2.	金應海의 高孫
140대	김영수(金永綬)	1786. 1. ~ 1786. 7.	

통제사공의 유적은 흥해읍의 선정비(흥해구제기적비)와 경남 통영시 세병관에 타루비(墮淚碑)가 전해오고 있으며, 하세하신 이후 2번이나 청백리에 천거되셨다. 답사팀은 청덕사를 방문, 지역

유림인 유종환(전 흥해읍장) 선생을 비롯해 전·현직 권무정 사두(射頭)와 이정업(李正業 전 포항문화원 사업과장) 선생으로부터 근 200년간 흥해읍민들이 통제사공을 모셔온 내력을 전해 듣고 고유제를 올렸다.

현재 흥해읍에는 통제사공의 영정과 친필 '권무당기(勸武堂記)'가 보존돼 있다.

중구일(重九日)의 통제사공 제사는 흥해군수가 초헌관을 맡아오다가 포항시로 통합된 뒤부터는 특별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나, 평상시에는 흥해읍장이 담당하고 있다. 청덕사 벽에 붙어 있는 분정이 해마다 향사를 모신 내역을 고스란히 전한다.

고유제 후 흥해궁도협회를 방문, 통제사공의 상무정신과 유비무환정신을 기리는 한편 통제사공의 초서체 친필인 '권무당기' 현판을 친견하였다.

충렬공 유적지 정동행성 터

고유제를 모신 후 답사팀은 경남 마산으로 직행, 마산시립박물관 송성안 박사의 안내로 충렬공의 일본정벌 유적지인 정동행성 터를 답사하였다. 정동행성 옛터는 충렬공께서 900척의 전함을 이끌고 함포에서 일본정벌을 떠나시던 곳이다. 정동행성 터는 수년 전 기초 발굴작업이 실시돼 향후 복원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친필 현판 '制勝堂'이 모셔져 있다.

1786년 1월 제140대 통제사로 부임하신 통제사공께서는 애통하게도 그 해 7월 임지인 통령에서 71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다. 사후 두 차례나 청백리로 추천될 정도로 추앙받는 선정관(善政官)이자 군부의 원로이신 노(老) 장군께서 운명을 달리 하시자 통령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제사공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런 까닭에 '선정비(善政碑)'라는 의례적인 문구 대신 '타루비(墮淚碑)'라 새겨졌다.

'타루(墮淚)', 즉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중국의 양양 사람들이 양호(羊祜)를 생각하면서 비석을 바라보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세병관은 수군 최고 지휘관들의 의전(儀典) 건물답게 9칸×5칸 크기의 위용을 자랑한다. 그 크기와 지분을 감당하기 위해 공포를 설치하고, 한 아람 반이나 되는 두리기둥을 안팎으로 배치해 내주(內柱)와 외주(外柱)로 세병관을 받치고 있다. 호쾌한 군인의 기상이 절로 느껴지는 이 집이 바로 우리 선조이신 제35대 통제사 김응해(金應海) 장군께서 중수하신 건물이다.

세병관 일대를 둘러본 뒤 답사팀은 통제사공께서 순직하신 운주당(運籌堂)으로 향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복원 중인 운주당 영역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이곳은 운주당을 비롯해 경무당(景武堂), 병고(兵庫), 내아(內衙)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통제사공의 경상지역 유적 답사 후 2007년 5월 6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경모재에서 통제사공의 시제가 봉행되었다. 이날 통제사공 답사를 기획한 태영종친은 답사 개요와 내용과 함께 새로운 현양자료 수집 결과 및 흥해지역 유림의 노력 등을 군사공과 어르신들과 후손들께 설명하고, 향후 통제사공 일대기와 업적을 정리한 책자 발간을 위해 군사공과종회와 광탄문중의 지원을 부탁드렸다. 이에 광탄문중 어르신들께서는 광탄문중 차원에



▲통제사공 친필 '권무당기' 현판



▲통제사공 친필 '제승당' 현판



▲세병관의 위용



▲운주당



▲통제사공 시제

서 통제사공 현양사업 원칙을 수립, 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답사팀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정업 선생을 비롯한 흥해지역 유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사진 발용(군), 글 윤식(문)

白凡金九先生尊影 10만원권 화폐圖案채택서명운동

정부에서는 10만원권 화폐발행을 앞두고 도안인물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김씨 대종회에서는 명예를 걸고 白凡金九先生이 결정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력한 인물로는 김구선생, 신사임당, 유관순, 광개토대왕, 장영실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10만원권에는 기필코 백범선생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백범김구선생은 여러분이 다아시는바와같이 국

가적 민족적 국민적 代表性的인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훈적 효과가 있는 큰인물입니다.

겨레의 큰스승인 백범김구선생이 설문조사에 압도적 지지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안동김씨가족 친지들이 많이 참여하시어 서명운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러브 김구 아이러브 대한민국
서명캠페인 홈페이지
www.ilovekimkoo.com
「제공: 백범기념사업협회」

一 門 四 忠

自古로 忠臣 烈士가 하나 둘이 아니건마는 한때 한 집안에서 父子 兄弟叔姪間에 넷 忠臣이 한꺼번에 輩出되었다는 것은 古今을 通하여 稀少한 일이다. 龍生龍이요 鳳生鳳이란 말이 있듯이 果然 忠臣의 집안에서 忠臣이 나는法이다.

一三九二年 高麗가 亡하고 李太祖가 登極하자 忠臣은 不事二君의 굳은 節介를 지키시고 陶山(現 忠北 淸原郡 梧倉面 慕亭里)에 隱居하시면서 일체 世上 사람들을 접촉치 않으시며 杜門不出하시고 끝까지 굳게 忠節을 지키시던 梧隱 按廉使公 諱士廉의 十代孫인 忠臣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諱天柱公집안에서 넷忠臣이 나왔으니 世上에서 이 집을 一門四忠의 집안이라고 일컬어오고 있다.

一七一八年 戊申逆亂時에 李麟佐 金寧海 陸時龍等이 叛亂을 일으켜 鎭川을 蹂躪하였다.

이때 天柱公께서는 아우되시는 忠臣 贈嘉善大夫戶參判兼 同知義禁府事 天章公과 叛亂軍을 相對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天章公은 화살에 세번이나 맞았어도 조금도 屈하지 않고 도리어 叛賊들을 꾸짖으며 決死奮鬪하다가 마침내 壯熱한 殉節을 하였다. 이 慘變을 目擊한 兄任되시는 天柱公께서는 아들 忠臣將仕郎聲秋와 姪 忠臣將仕郎 聲玉(天章公의 子)과 더불어 亂軍과 衝突하여 싸울때 尺劔을 휘두르며 奮戰奮鬪하다가 天柱公께서는 마침내 賊槍에 맞아 오른팔이 떨어졌으나 끝내 屈하지 않고 눈을 부르뜨며 賊을 꾸짖으니 그 怒聲이 天地를 震動하였다 한다.

아들 聲秋公은 叔父 天章公께서 賊의 화살에 맞아 殉節하고 이어 아버지 天柱公께서 賊의 槍에 맞아 오른팔이 떨어져 流血이 浪藉하여 目不忍見의 悲慘한 光景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尺劔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叛軍들을 때려

눕이고 죽이고 밟고하며 高聲大喝하니 그 力拔山하는 項羽같은 힘과 怒氣에찬 성난 모습을 보고 叛賊들이 겁을 먹고 對抗하여 오지 아니했다. 더욱 義氣 衝天하여 父屍를 찾아 군문앞에서 수세를 거두고 瘡處를 싸매고 歸家했다. 天章公 兄弟에게는 이미 旌閭를 받고 그 子孫은 復戶만 주고 일찍이 旌閭典을 입지 못하였던 것을 後에 玄孫되는 諱煜이 王(高宗)에 글을 올려 上奏하니 王께서 그 忠節을 嘉尙히 여겨 父, 子, 叔, 姪, 一門四忠의 旌閭를 并設하도록 하고 一門四忠 額字를 親히 下賜하고 그 功을 높히 讚揚하였다.

鎭川에서 천안시 병천으로 나가는 土石部落 앞 道路邊에 古色蒼然한 아담한 旌閭가 있으니 이 旌閭가 곧 一門四忠의 賜額 旌閭이다. 때로 이 앞을 지나가는 行人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웃짓을 가다듬고 肅然히 머리숙여 冥想케 한다.

朱子는 이르기를 先祖의 善行을 後孫들이 널리 알리지 아니함도 또한 不孝이니라(父祖有善而子孫不暴白則亦不孝)하였으니 이精神으로 비추어 보면 先祖任들의 훌륭한 業績을 後世에 널리 알리고 宣揚치 못하였으니 實로 痛嘆할 일이다. 現代사람들은 外國名士들의 記錄에 汲及하면서도 감진 自己祖上들의 貴重한 史蹟에는 도리어 度外視하고 外面 乃至 無關心한 傾向이 許多한 實情임으로 甚히 遺憾스러운 일이다.

八·一五解放後 外來 文化가 潮水처럼 밀려들어 우리나라의 傳統思想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頹廢風潮가 蔓延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傳統을 찾는다는것은 오직 根源을 培養하는 길이요 追遠報本하는 精神을 涵養하는 길이니 어찌 소홀이 할 수 있겠는가.

「大宗會顧問 明會 謹識」

三韓壁上功臣의 定義

삼한공신(三韓功臣)은 王建太祖가 後三國統一에 功을 세운 당대의 세력들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인데 삼한공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세기34년조(世家)에 나오는데 서기 936년(태조19)에 고려가 후삼국통일을 한 뒤 서기 940년에 후삼국통일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면서 설정된 직함으로 추정되는데 서기 940년 신 흥사를 중수할 때 이곳에 공신당을 세우고 동서벽에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벽에 그려진 공신들을 따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라 불렀다. 그러나 삼한벽상공신도 삼한공신에 포함시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비록 벽에 그려진 공신들이 삼한통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삼한공신과 위계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신당에 오른 인물들이 모두 삼한공신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또 고려의 개국공신도 삼한공신과 겹쳐 이들역시 삼한공신의 범위에 넣는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대략 3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와 그

에게 협력 하였던 각지방의 대소 호족들이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직첩서찰(職牒書札)이 내려지고 이들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여 문음(門蔭)의 특전을 받을수 있게 하였다.

또 식읍(食邑)과 녹읍(綠邑) 역분전(役分田)의 형태로 경제적 기반도 제공되었다. 사심관(事審官)제도를 통해 자신의 본거지에서 독자적인 세력가로써 이전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들의 독자성은 새로 탄생한 고려왕조에 커다란 견제세력으로 작용하였다.

태조이후 왕권강화를 목표로 삼았던 광종은 이들을 숙청하였고 경종 초기에 이에대한 반동의 기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종때 중앙집권화 정책으로 새 국가체제의 정비작업이 추진되면서 점차 토호세력의 독립성을 잃고 중앙정부의 관료로써 일정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삼한공신외에 뒷날 공신칭호를 받은사람들은 삼한후공신 삼한후벽상공신이라하여 삼한공신과 구별한다.

「제공: 대종회부회장 命會(익)」

종보구독(宗報購讀)을 권유합니다.

대종회에서 종보를 년4회 계간(季刊)으로 발간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 종보는 대종회에 등록된 전 종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급도서관과 타성씨 종중(他姓氏 宗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보를 구독하지 못하고 있는

종친이 허다할줄 사료되오나 종보를 받아보시고 있는 종원께서는 근처이나 주위와 이웃종원들에게 권유하여 성명, 파명, 연락전화번호등을 대종회(02-2244-3717, 2217-37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비를 보내주세요」

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뜻과 같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대종회 살림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회비를 쓸때마다 고마운 마음

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현재까지 회비를 미쳐 내시지 못한 임원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송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계좌 국민은행:356-01-0012-521 예금주:안동김씨대종회

사회는 모든 사람의 학교

사회는 모든 사람의 학교요
역사는 모든 사람의 교과서요
경험은 모든 사람의 스승이다.

말로써 말이 많던 병술년을 서천으로 실어 보내고 육십갑자의 스물네번째 간지(干支) 정해년의 서기(瑞氣)가 동천에서 솟아 오른다. 혹독한 추위도 눈도 비도 없었으며 한강이 얼지 않는 가운데 긴 겨울을 보내고 우수(雨水)를 전후해서 은실같이 가는 빗발이 온누리에 고르게 내렸다. 매 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녹여주고 아울러 좌충우돌 세상살이에 찌들린 서민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주었다 이해에 바람이 있다면 년말로 예정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큰 행사에 모략과 중상과 잡음이 없는 가운데 뚜렷한 소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운이 크게 열리기를 시골 백성 좁은 가슴으로 기도를 드린다. 미국의 성실한 평민 대통령 링컨이 어느 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로부터 요직에 등용할 사람을 추천받았다. 링컨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채용하지않는 이유를 묻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성실의 표정이 은은하게 밝혀진다. 정직한 생활로 주변을 정리한 사람은 정직한 향기와 외부에 풍겨지며 거짓된 생활로 세상을 속여온 사람의 모습은 어딘지 거짓의 약삭빠른 그림자가 표출되기 마련이다. 오랜세월 불행에 묻혀서 밝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느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

게 된다. 감출 수 없는것은 사람의 얼굴이요 얼굴은 인품의 표현이다. 성격의 반영이요 마음의 그림자다 하고, 자네가 추천한 그 사람은 얼굴에 성실의 표정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같이 느껴져서 혹시라도 배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말로서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사람은 계층이나 환경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표정관리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웃음과 말씨도 역시 사람의 인품적도를 가늠하는 저울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옛 선비들은 다소비단사(多笑非端士)요 다언비군자(多言非君子)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웃음이 해푸면 단정한 선비가 아니요 말이 많으면 군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웃음의 종류도 여러가지다. 근엄한 표정으로 사물을 평화롭게 보는 은은한 웃음, 뜻밖의 행운을 얻은 만면 희열의 웃음, 오랫동안 격의 없는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벌려놓고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리며 곱판지게 웃는 호방한 웃음, 귀여운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웃음들 모두들 아름답다 반면 상대방에 불만을 품고 꾸며서 흘리는 비수같은 웃음, 남을 비하하는 표정으로 입 언저리에 번지는 경멸의 웃음, 신분이나 지위에 맞지 않는 수작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선웃음도 있다. 하지만

별다른 웃음의 원인이 없는데도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분이 높아서 덕스러운 기운이 몸에서 흘러야 할 처지인데도 이유없는 남을 알보는 듯 히죽히죽 웃는 알팍한 소인의 웃음을 웃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포함한 고 전달하는 언어 또한 그 사람을 자질하는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다. 시의에 적절하고 꾸밈새 없는 간결한 말은 여러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말을 잘하면 말만으로도 남에게진 은공을 갚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넉넉하고 유머있는 말로서 아름다운 대접도 받을 수 있다. 말 잘하면 천냥빛도 갚는다 말안하면 귀신도 모른다. 말로서 이루어진 속담이나 격언이 수없이 많다 그 중에도 말이 앞서지 행동 앞서는 사람이 드물다. 말이 말 만든다는 얘기는 고금을 통하여 불변의 철칙이나 그러나 대중이 유무상 통으로 뒤 엉켜사는 저자거리에 사람마다 저울같이 잣대같이 살기란 쉽지 않으며 그들만이 사는 사회는 재미가 없고 기름기 없는 팍삭한 사회가 될것이다. 때때로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이해관계 없는 씨다잡은 말들로 폭소를 자아내고 옆사람의 무릎을 치면서 내말좀 들으라고 거품을 물다가 한이차면 꼬부라져 그대로 잠이 들 수도 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아 내 어제 무슨 말했나 하고 또 한번 크게 웃는다 이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되고 멋을 풍겨주는 일들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혐오감없이 일시 궤도를 벗어나서 주변에 평화로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멋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 고전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사람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라는 기록이 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 그가 천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면 그의 씀씀이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말이 행동과 맞는가를 살펴보고 높은 사람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면 모시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고 궁핍한 사람이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재물을 받는가를 살펴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면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고라하였다. 란(亂)이 치(治)를 공격하는 사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사회, 사(私)가 공(公)을 앞서는 사회, 역(逆)이 순(順)을 누르는 사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공자께서는 교언 영색 선의인(巧言令色 鮮矣仁)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말을 재치있게 잘 꾸미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바꾸는 사람이 어진 사람 드물다고 하였다. 근엄한 표정으로 무게 있는 말 한마디로 지도자의 품위를 아름답게 꾸며준다. 세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정말 겸허하고 의미 있는 말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의 학교요, 역사는 모든 사람의 교과서요, 경험은 모든 사람의 스승이다. 평생을 배우면서 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명정(銘旌)이나 신주에 학생이라 적었다 누가 성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곧 성인이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다.

「제공:(都)대종회 전부회장 창회」

홈페이지 개편과 광고코너, 장터방 신설

대종회에서는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금년 5월, 우리 안동김씨 홈페이지

지(andongkim.net)를 신선하고 알차게 대폭 개편하였다. 특히 이전에 없던 전국의 문중 주요 문화제 소개, 전자족보방, 광고 코너와 장터방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코너는 메인화면 우측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장터방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광고에 참여하시려는 종친은 대종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장터방은 우리

종친 여러분께서 생산한 양질의 순수 국산 농수산물물 전국 종친들께 1:1 직거래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는데, 이곳에 자신의 생산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종친께서는 홈페이지의 장터방으로 들어가서 지시하는 일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 총누계는 약 40만 명을 넘고 있는데(2000년 12월 이후, 1일 약 150여명 접속) 매 10만 단위로 접속되는 분에게는 행운의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부족한 내용들을 계속 보완 중에 있는데, 특히

일부 파종회의 소개 자료, 각과 내 소종중의 시제일, 각 지역종친회 소개 등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해당 파종회와 종중 및 종친회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신속히 대종회나 홈 관리자에게 송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자랑스런安東人

“김은지(金垠址)嬢 하버드 대학교 입학”

은지嬢은 익원공后 進士公 諱 德 麒(휘 덕기)의 15代孫으로 泰煥宗 親의 二女中 장녀로 태어나 강화 길상초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서

울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를 졸업하고 2007년 미국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재원으로 학업은 물론 대외활동에도 적극참여하여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며 집안에서 도 보기도문 효녀로 家門의 자랑

이 아닐 수 없다.

활동사항

- 강화여자중학교 전교회장
- 전경련 주최 영어경제캠프 반장
- 서울시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터 MIZY, 제 3기 청소년 운영위원

회 회장

- MIZY 아리랑 데이 기획팀 / 데코팀 총 담당
- 영락모자원 서예교사(자원봉사)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프로그램에 선발
- 몽골에서 자원봉사(영어가르치기, 한국문화소개 등)
- 한국-폴란드 정부간 청소년 교류단에 선발, 폴란드 방문
- 조선일보 인턴쉽
- 2006 세계지식포럼 체험단

「제공: 강화군 종친회장(익)근식」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찬 조 금 (2007.1.25 - 5.20)

●찬조금

- 10만원: (郡)승용, (提)여회 (按)태정 (文)태옥
- 5만원: (翼)한식
- 3만원: (翼)용해, 삼랑, 명회 (文)용만, 태환

계: 600,000(원)

●통상회비

- 10만원: 월량종친회
- 5만원: 논산시종친회, (사천김씨) 재명, (按)용식, 춘식
- 3만원: (密)용화 (按)태두, 태현, 태언, 재선 (典)재철 (翼)봉수, 영두, 원식, 윤회, 태관, 병수, 수돈, 재봉, 정회 재방, 계성, 용구, 을순, 우길 (副)규빈, 창식 (都)영수 (提)태기, 규호 (未)재성
- 2만원: (提)태상, 홍열, 상석, 태하, 용환, 익수 (按)태길, 철회, 사진, 진회, 태은-대전, 태은-서울, 갑목 건회, 영준 (密)재국 (判)봉선, (開)상위 (翼)만천, 준회, 철회, 홍식, 선창, 중회, 상천, 재택, 윤한, 수대, 재화, 대석, 진창, 달수, 재환, 선회, 근식 (文)태연, 윤만, 양회 (書)규태, (正)수성, 수진 (都)회수, 재욱, 춘식 (典)경회, 인회, 재환, 재열, 재석, 재중, 재부, 태진 (郡)재찬, 재경, 경묵 (未)광식
- 1만5천원: (典)재현
- 1만원: (翼)재교, (郡)재운, (文)수섭, 재회

계: 2,255,000(원)

제40회 정기총회 찬조금

- 일백만원: (按)홍식 (翼)신
- 삼십만원: (提)승용
- 일십만원: (翼)용대, 재용, 수백, 태영, (都)봉회, (郡)수인, (文)광우, 종회, 재호, (正)수진 (按)태인, 태영, 광식 (典)근성, 춘교, 개성윤공파종회, 익원공파종회, 안렴사공파종회, 전서공파종회, 대호군공파종회, 제학공파종회, 서운관정공파종회, (按)좌랑공파종회, (翼)매운재, 대구종친회문영공파종회, 서산태안종친회, 인천종친회, 증평종친회, 청주종친회
- 오만원: (翼)문원, 성식, 태규, (提)남응, 태욱, 상천, (郡)낙용, 재홍, (按)사관, 예묵 태선 (正)태호 (書)관호, (郡)광탄종친회
- 삼만원: (按)성회
- 이만원: (按)재원

49명: 6,050,000 원

제 40회 정기총회 회비

- ◎ 밀직사사공파 : 영응, 재영, 병록
- ◎ 개성윤공파 : 이경, 태복,
- ◎ 군사공파 : 수인, 낙용, 재화(평택), 준회(파주), 인회, 덕용, 재화(서울), 용회, 재홍, 경묵, 송묵, 영묵, 준회(서울), 찬회, 제묵, 대용, 재택, 세묵, 흥묵, 세용, 재화(괴산)
- ◎ 전서공파 : 근성, 재열(서울), 재환, 현묵, 용고, 동찬, 인회, 용우, 현무, 흥고, 택식, 재열(경기), 원회
- ◎ 부사공파 : 재유
- ◎ 문은공파 : 광우, 광도, 종회, 재호, 영광, 광현, 수길, 창회, 천회, 영회
- ◎ 안정공파 : 선호
- ◎ 도평의공파 : 춘호, 은호, 봉회
- ◎ 대호군공파 : 회주, 태식, 성무, 경종, 재철, 종회
- ◎ 제학공파 : 남응, 영묵, 명년, 태욱, 태욱, 상천, 승용, 규팔, 봉회, 태섭, 용규, 태현, 용두, 규복, 규문, 태성, 태환, 남식, 태흥, 규현
- ◎ 판삼사공파 : 봉선
- ◎ 안렴사공파 : 영만, 회운, 광식, 태봉, 용주, 사관, 태영, 용진, 기식, 영주, 춘식, 태문, 재구, 재만, 예묵, 성회(청주), 동회, 재덕, 창회, 태선, 재순, 재명, 재운, 선회, 재원, 재성(증평), 태웅, 창회(증평), 재성(청주), 재홍, 태형, 용식, 성회(연기군), 태돈, 재우, 용식, 명산
- ◎ 익원공파 : 태영(청주), 동묵, 광회, 재균, 만교, 도갑, 경문, 태갑, 재광, 재용, 문원, 재훈, 대관, 상수, 복회, 장회, 창식, 재영, 한식, 재만, 영채, 원구, 재승, 철회, 재현, 태길, 성식(청주), 용묵, 태영(충주), 종회, 응회 재성, 용세, 명묵, 재각, 영화, 동수, 석교, 성식(안동), 태규
- ◎ 서운관정공파 : 성영, 철호, 학영, 규면,
- ◎ 정의공파 : 수진, 태응, 태호

총회비 162명 4,890,000원

향 전 원 에

경조화환 · 화분

대표 김 재 군

전화 : 783-3166~7

780-8477

팩스 : 2124-7707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6-27 서소문 꽃시장 C-6

